



이 슈 리 포 트

2011년 3분기 수출기업체감지수와 수출기업 애로사항

이 재 우/산업투자조사실 선임연구원

I. 수출기업체감지수

1. 2011년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2. 2011년 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II. 2011년 3분기 수출 개선·악화 원인과 애로사항

1. 수출업황 개선과 악화 원인
2. 수출기업 애로사항

요 약

1. 2011년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102)보다 하락한 97을 기록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와 수출물량 평가지수가 모두 하락함에 따라 전반적인 수출업황이 전기 대비 악화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전기(97)보다 하락한 89를 기록,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이 전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 생산원가 평가지수가 119로 전기(123)보다 하락하였으나, 수출단가(원화기준) 평가지수가 104에서 97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됨.
 - 3분기중 원/달러 환율이 전기 대비 하락함에 따라 수출단가(원화기준)가 하락하고, 경쟁심화 등으로 반도체 등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됨.



2. 2011년 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102로 3분기(108)보다 하락
 - 수출기업들은 금융위기 심화 및 세계적인 경기회복세 둔화로, 수출업황이 2분기 연속 하락하며 수출경기의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100으로 3분기(105)보다 하락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채산성도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07로 전기(116)보다 하락하여, 기업들은 경기둔화 심화로 전기보다 수출물량 증가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3. 수출기업 업황악화 원인과 애로사항

- 수출업황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
 - 수출업황 악화기업 중 68%가 수출 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는 전기(48.9%)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최근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업황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 가격경쟁력 하락은 26%로 전기(43.5%)에 비해 비중이 하락한 반면 원화환율 변동과 업체 간 경쟁심화 등의 비중은 전기보다 다소 높아짐.
 - 섬유와 자동차 업체의 경우 40% 이상이 원화환율 변동을 업황악화의 요인으로 답하고 있음.
-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환율 불안정
 - 수출기업은 수출의 애로사항으로 원화환율 불안정(67%), 원자재 가격 상승(60%),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34.3%)를 꼽고 있음.
 - 이외에도 인건비 상승이 19%, 높은 물류비용이 8%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I 수출기업체감지수

1. 2011년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102)보다 하락한 97을 기록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와 수출물량 평가지수가 모두 하락함에 따라 수출업황이 전반적으로 전기 대비 악화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전기(97)보다 하락한 89를 기록,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이 전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 생산원가 평가지수가 119로 전기(123)보다 하락하였으나, 수출단가(원화기준) 평가지수가 104에서 97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됨.
 - 3분기중 원/달러 환율이 전기 대비 하락함에 따라 수출단가(원화기준)가 하락하고, 경쟁심화 등으로 반도체 등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됨.

※ 원/달러 환율 추이(기간평균):

1,133 (2010년 4분기) → 1,120(2011년 1분기) → 1,084(2011년 2분기)
→ 1,077(2011년 3분기)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선진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철강, 전기전자, 조선 업체 중심으로 업황평가가 크게 하락하며 전기(110)보다 9포인트 하락한 101 기록
 - － 수출계약 평가지수도 전기(110)보다 하락한 102를 기록하여 수출업체들의 계약 성사 건 수의 증가 폭도 전기 대비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평가지수도 조선 및 플랜트 업체를 중심으로 하락하며 전기(99)보다 하락한 94를 기록, 3분기 연속 기준치인 100 이하를 기록하여 자금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표 1>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업황 평가지수	112	103	110	117	109	102	98	102	97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102	94	98	113	103	94	89	97	89
수출단가 평가지수	98	92	95	112	103	100	109	104	97
생산원가 평가지수	109	105	109	119	115	116	134	123	119
수출물량 평가지수	112	108	111	122	112	104	104	110	101
수출계약 평가지수	112	109	111	122	112	105	103	110	102
자금사정 평가지수	107	103	100	108	106	102	96	99	94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업황이 중소기업보다 더 악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황평가지수는 각각 96, 97로 전기(대기업 105, 중소기업 101) 대비 대기업의 하락 폭이 더 큼.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대기업 82, 중소기업 91을 기록, 전기(대기업 96, 중소기업 97)보다 대기업의 채산성이 더 크게 악화됨.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대기업 100, 중소기업 102를 기록, 수출물량 증가율이 전기(대기업 112, 중소기업 110)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대기업 97, 중소기업 93을 기록, 전기(대기업 109, 중소기업 96) 대비 대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상황이 심화됨.

□ 산업별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철강(84) 및 전기전자(92) 등이 크게 악화

- 기계류와 플랜트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수출기업의 업황이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됨.
- 산업별 수출채산성 지수는 플랜트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기준치 이하를 기록함.
 - 특히, 철강, 석유화학, 조선, 섬유 업체의 경우 70~80대를 기록하여 채산성 악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조선이 83을 기록, 전기(113)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철강업체도 88를 기록하여 매우 부진한 상황임.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플랜트가 75, 조선산업이 79를 기록하여 해당산업의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지역별 업황 평가지수는 유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악화

○ 수출지역별 업황 평가지수는 중국 및 동남아가 90, 미국이 98로 주요 수출 대상국의 업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중국이 81을 기록, 2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여 대 중국 수출업체의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표 2>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지역별 2011년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 분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물량 평가지수		자금사정 평가지수	
		2011 2/4	2011 3/4	2011 2/4	2011 3/4	2011 2/4	2011 3/4	2011년 2/4	2011 3/4
규모별	대 기 업	105	96	96	82	112	100	109	97
	중 소 기 업	101	97	97	91	110	102	96	93
업종별	석 유 화 학	97	94	95	80	108	98	100	98
	철강 및 비철금속	98	84	88	78	103	88	103	97
	전 기 · 전 자	100	92	93	87	111	95	95	91
	기 계 류	108	105	103	96	113	115	102	97
	자동차(부품 포함)	100	105	100	93	113	106	103	96
	조 선	106	96	100	83	113	83	88	79
	섬 유	101	98	93	87	104	98	98	87
	플 랜 트	100	113	117	100	117	163	83	75
지역별	미 국	107	98	100	88	113	101	100	94
	중 국	93	90	90	81	101	92	94	93
	일 본	104	100	95	90	114	107	100	95
	유 로	111	113	103	103	123	116	105	98
	동 남 아	96	90	94	91	103	100	96	98
	중 남 미	122	94	100	106	117	100	111	94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반적인 하락세에도 기준치 100을 유지하였으나, 특히 중국 지역 수출업체의 경우 92를 기록하여 수출물량의 위축이 심화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동남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모든 지역에서 기준치를 하회함.

2. 2011년 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102로 3분기(108)보다 하락

- 수출기업들은 금융위기 심화 및 세계적인 경기회복세 둔화로 수출업황이 2분기 연속 하락하며 수출경기의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100으로 3분기(105)보다 하락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채산성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들은 경기악화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단가인하 압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07로 전기(116)보다 하락하여 기업들은 경기둔화 심화로 전기보다 수출물량 증가 폭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금사정 전망지수도 100으로 전기(106)보다 하락하여 자금사정 악화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103을 기록하여 전기(대기업 108, 중소기업 109) 보다 하락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중소기업의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나,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수출물량 전망지수 역시 중소기업이 11포인트 이상 하락하여 수출경기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폭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음.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100을 기록하여 전기(대기업 109, 중소기업 106) 대비 하락하였음.



<표 3>

수출업황 전망지수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업황 전망지수	112	117	110	123	117	113	106	116	108	102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105	108	101	108	111	106	101	107	105	100
수출단가 전망지수	7	99	97	100	105	102	102	109	102	99
생산원가 전망지수	103	105	106	110	110	109	112	125	111	108
수출물량 전망지수	117	118	112	129	121	114	110	124	116	107
수출계약 전망지수	117	118	111	129	121	113	109	123	116	106
자금사정 전망지수	n/a	111	103	111	110	106	101	106	106	100

□ 산업별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악화

- 플랜트를 제외한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전자, 석유화학, 섬유류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업황 전망지수가 하락함.
 - 특히, 석유화학 및 전기전자 업체의 4분기 업황전망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조선,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류 업체에서 크게 하락한 반면, 철강 및 자동차 업체의 채산성 전망지수는 상승함.
- 산업별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기계류, 섬유, 조선, 전기전자 업체의 지수가 크게 하락하여 수출증가 폭 하락을 우려하고 있음.
 - 그러나 모든 산업에서 기준치를 상회하여 전기 대비 물량증가를 전망하고 있어, 전기 대비 수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지는 않음.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석유화학, 기계류, 조선, 전기전자 업체들이 기준치를 하회하며 전기 대비 자금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음.



□ 수출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로지역 등 선진국 중심으로 하락

- 지역별 업황 전망지수는 중남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하여,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기위축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미국과 중국 지역의 전망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함.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해당 지역에서 수출증가율 하락을 우려하고 있음.

<표 4>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지역별 2011년 3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구 분		수출업황 전망지수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수출물량 전망지수		자금사정 전망지수	
		2011 3/4	2011 4/4	2011 3/4	2011 4/4	2011 3/4	2011 4/4	2011 3/4	2011 4/4
규모별	대 기 업	108	103	102	100	115	110	109	100
	중 소 기 업	109	103	106	100	117	106	106	100
업종별	석 유 화 학	99	95	101	95	111	105	103	95
	철강및비철금속	104	102	99	101	108	106	108	103
	전 기 · 전 자	110	97	108	93	117	103	105	96
	기 계 류	115	102	107	96	123	103	110	97
	자동차(부품 포함)	104	104	98	105	107	115	102	102
	조 선	103	96	106	88	119	100	106	96
	섬 유	113	106	110	109	127	106	103	102
	플 랜 트	108	138	108	113	125	113	108	125
지역별	미 국	110	100	107	98	117	108	108	98
	중 국	105	101	104	99	117	105	105	100
	일 본	110	100	100	98	112	102	108	96
	유 로	115	109	108	106	122	113	111	106
	동 남 아	104	100	99	98	116	106	104	101
	중 남 미	100	100	111	106	111	106	94	106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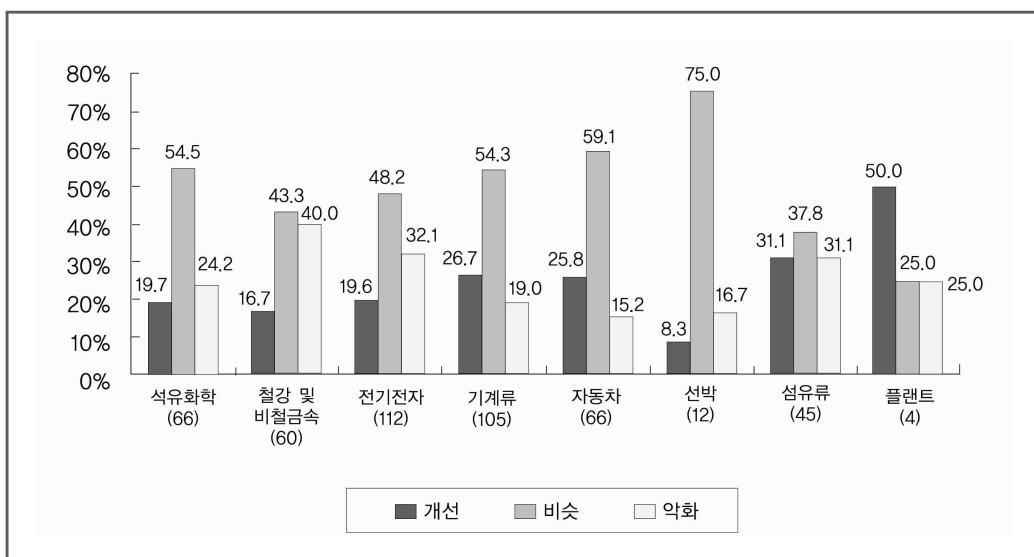
2011년 3분기 수출기업 업황개선·악화 원인과

1. 수출업황 개선과 악화 원인

□ 2011년 2분기 중 수출업황이 악화된 기업이 개선된 기업보다 다수

- 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1.9%, 악화되었다는 기업은 25.9%로 나타남.
 - － 전기(개선 26.2%, 악화 20.3%)보다 악화된 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임.
 - － 52%는 수출업황이 2011년 2분기와 비슷하다고 답함.
- 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31%의 업체가 중소기업의 경우 24%의 업체가 업황이 전기 대비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산업분류별로는 기계류, 자동차, 플랜트 산업은 업황개선 기업이 많은 반면 석유화학, 철강, 선박의 경우 업황악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산업별 수출기업의 업황개선 및 악화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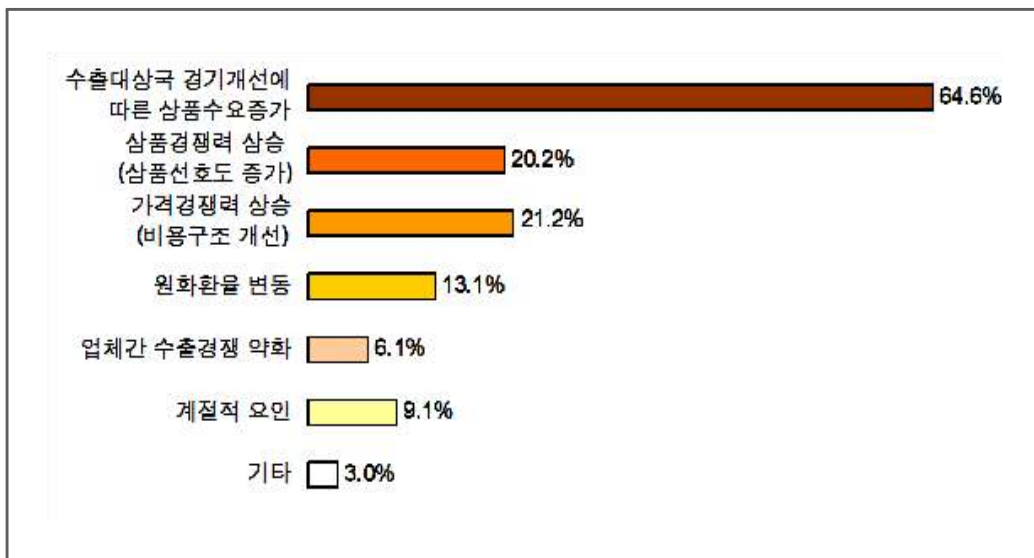


□ **업황이 개선된 기업은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이 가장 큰 개선요인이라고 응답**

- 수출업황 개선기업 중 65%는 업황개선 원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를 지적하고 있으나, 전기(75%)보다 낮아져 전반적으로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이 크지 않았음을 보임.
 - 다음으로 비용구조 개선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이 21%, 상품경쟁력 상승이 20%를 차지함.
- 업황이 개선된 플랜트와 석유화학 업체 중 각각 50%와 39%가 상품경쟁력 개선으로 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해 이들 산업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상품경쟁력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업황이 개선된 철강업체의 경우에는 40%의 기업이 비용구조 개선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를 개선원인으로 응답함.

<그림 2>

2011년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주: 업황개선 기업 수는 119개임.



<표 5>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 지역별 2011년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구 분		상품 경쟁력 상승	가격 경쟁력 상승	수출 대상국 경기개선	업체간 수출 경쟁 약화	원화 환율 변동	계절적 요인
규모 별	대 기 업	23.3%	36.7%	53.3%	6.7%	20.0%	6.7%
	중 소 기 업	18.8%	14.5%	69.6%	5.8%	10.1%	10.1%
업 종 별	석 유 화 학	38.5%	7.7%	76.9%	0.0%	7.7%	15.4%
	철강 및 비철금속	20.0%	40.0%	60.0%	10.0%	10.0%	10.0%
	전 기 · 전 자	18.2%	13.6%	63.6%	4.5%	9.1%	13.6%
	기 계 류	10.7%	14.3%	64.3%	3.6%	14.3%	17.9%
	자동차(부품 포함)	11.8%	29.4%	70.6%	5.9%	29.4%	0.0%
	조 선	0.0%	0.0%	100.0%	0.0%	0.0%	0.0%
	섬 유	28.6%	28.6%	50.0%	14.3%	7.1%	14.3%
	플 랜 트	50.0%	50.0%	5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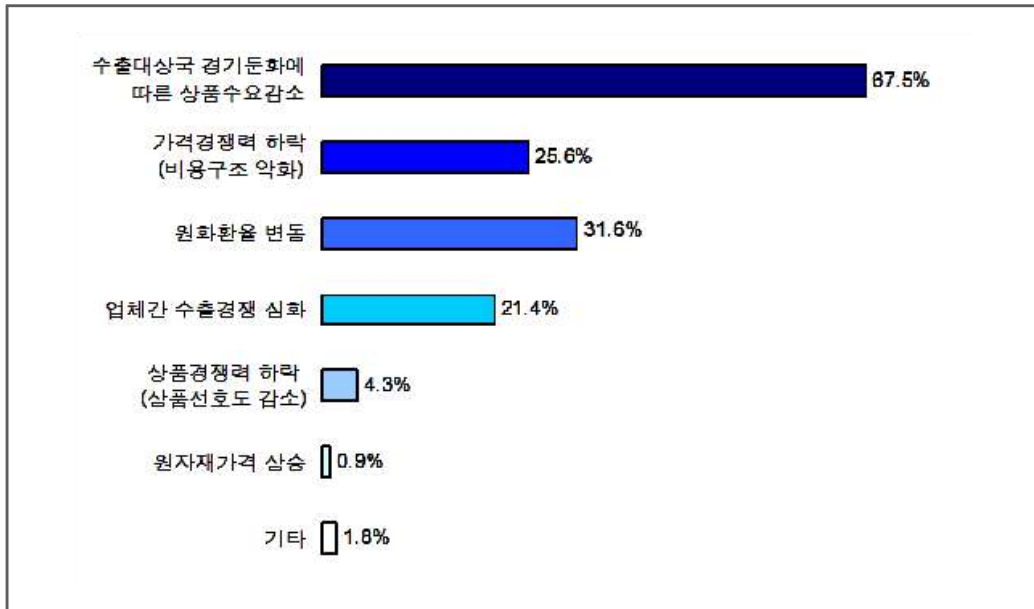
□ 수출업황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

- 수출업황 악화기업 중 68%가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는 전기(48.9%)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최근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업황 악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임.
 - 가격경쟁력 하락은 26%로 전기(43.5%)에 비해 비중이 하락한 반면, 원화환율 변동과 업체 간 경쟁심화 등의 비중은 전기보다 다소 높아짐.
- 섬유와 자동차 업체의 경우 40% 이상이 원화환율 변동을 업황악화의 요인으로 답하고 있음.



<그림 3>

2011년 3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표 6>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지역별 2011년 3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구 분		상품 경쟁력 하락	가격 경쟁력 하락	수출 대상국 경기악화	업체간 수출 경쟁 심화	원화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규모별	대 기 업	2.9%	29.4%	76.5%	26.5%	20.6%	0.0%
	중 소 기 업	4.8%	24.1%	63.9%	19.3%	36.1%	2.4%
업종별	석 유 화 학	0.0%	31.3%	56.3%	31.3%	37.5%	0.0%
	철강 및 비철금속	4.2%	37.5%	79.2%	25.0%	16.7%	0.0%
	전 기 · 전 자	8.3%	25.0%	75.0%	8.3%	30.6%	0.0%
	기 계 류	0.0%	10.0%	75.0%	40.0%	35.0%	0.0%
	자동차(부품 포함)	0.0%	40.0%	40.0%	20.0%	40.0%	0.0%
	조 선	0.0%	50.0%	50.0%	50.0%	0.0%	0.0%
	섬 유	7.1%	14.3%	64.3%	7.1%	42.9%	7.1%
	플 랜 트	0.0%	100.0%	0.0%	0.0%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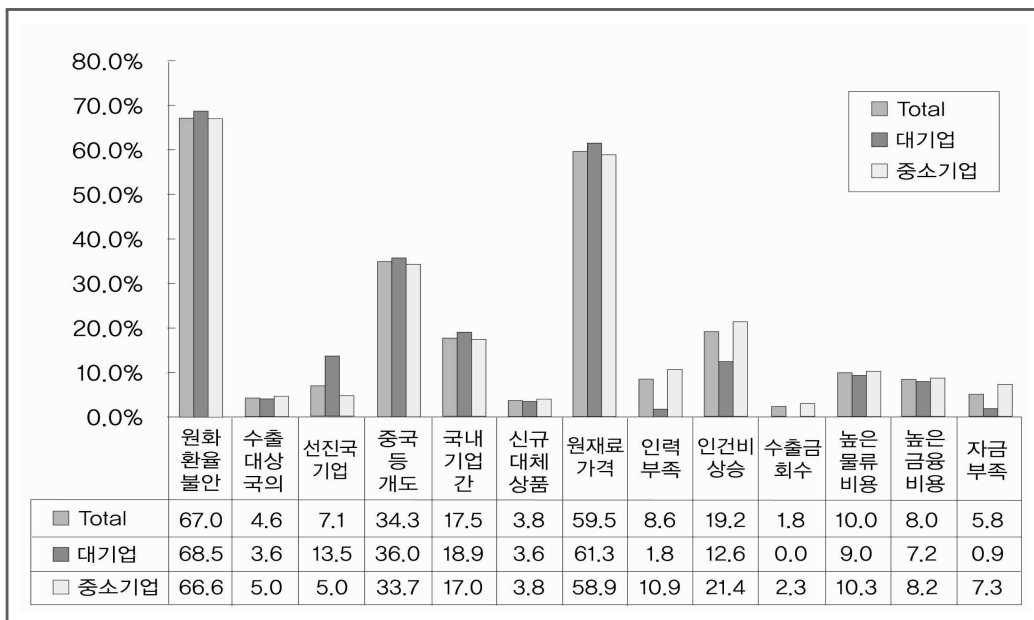
2. 수출기업 애로사항

□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환율 불안정임.

- 수출기업은 수출의 애로사항으로 원화환율 불안정(67%), 원자재 가격 상승(60%),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34.3%)를 꼽고 있음.
- 이외에도 인건비 상승이 19%, 높은 물류비용이 8%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기계류 산업의 75%가 원화환율 불안정을, 자동차 업체의 70%와 선박업체의 58%가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를 애로사항으로 답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조선산업과 섬유산업의 경우 각각 67%, 51%의 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 섬유업체의 경우 29%가 인건비 상승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해 해당산업의 인건비 압박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2011년 3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표 7> 2011년 3분기 산업별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단위: %

구 분	석유 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 전자	기계류	자동차	조선	섬유류	플랜트
원화환율 불안정	69.7%	60.0%	62.5%	75.2%	72.7%	41.7%	75.6%	75.0%
원재료 가격 상승	65.2%	60.0%	53.6%	57.1%	69.7%	66.7%	51.1%	25.0%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37.9%	36.7%	41.1%	31.4%	28.8%	58.3%	33.3%	25.0%
국내기업간 출혈경쟁	16.7%	23.3%	14.3%	25.7%	4.5%	33.3%	15.6%	75.0%
인건비 상승	12.1%	10.0%	18.8%	16.2%	22.7%	25.0%	28.9%	25.0%
선진국기업의 견제	7.6%	11.7%	8.0%	11.4%	15.2%	8.3%	13.3%	0.0%
높은 물류비용	7.6%	11.7%	8.0%	11.4%	15.2%	8.3%	13.3%	0.0%
높은 금융비용	4.5%	8.3%	8.0%	6.7%	6.1%	0.0%	17.8%	0.0%
신규대체상품 출현	4.5%	5.0%	4.5%	3.8%	1.5%	0.0%	0.0%	0.0%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고관세)	3.0%	5.0%	5.4%	2.9%	7.6%	0.0%	4.4%	0.0%
자금부족	4.5%	5.0%	8.0%	2.9%	4.5%	0.0%	6.7%	0.0%
인력부족	4.5%	1.7%	5.4%	10.5%	7.6%	8.3%	11.1%	50.0%
수출금 회수에 어려움	0.0%	1.7%	1.8%	1.9%	1.5%	0.0%	4.4%	0.0%